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충돌과 화해의 場으로서의 일본 유학-

박 세 희

Abstract

Park Sehi. 2013. 10. 31. **A study o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society.** *Bilingual Research* 53, 55-79. This study consists of empirical research focused on learners' attitude change in the field of individual difference stud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odified-Grounded Theory Approach. It investigates o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culture. This study illuminates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learners trying to control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ne aspect is explained in the category of "Japan as a collision field"; Another, "Japan as a reconciliation field." This study uses the expression of [Safety distance control] to explai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society. **(Pyeongtaek University)**

【Key words】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Korean Japanese language learners), 유학생(foreign students), 일본인(Japanese) 일본 사회(Japanese society) 태도(attitude), 수정 관근거이론(Modified-Grounded Theory Approach.)

1. 서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개별성요인』에 관해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필자 자신이 한 사람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로서, 오래도록 품어 왔던 복잡한 심경에 관해 성찰해 왔기 때문이라고 돌이켜 본다. ‘나는 많은 외국어 중에서 왜 일본어를 선택한 것일까.’, ‘지금도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어는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있는가.’, ‘일본어로 말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나 자신인가.’ 필자에게 일본어 학습은 일본어 학습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은 ‘일본에 가고 싶지만,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며 여행을 통한 일본 사회의 경험과 학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어는 현재 국내에서 중국어와 함께 가장 많이 선택받는¹⁾ 제2외국어²⁾임에는 틀림이 없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 동기에 관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의한 관심 증가와,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일본어가 한국어와 문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된다고 분석하고 있다(纒坂2007). 하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1)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은 학교의 선택에 일반적으로 강요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기타 제2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없으며 제2외국어 교육의 편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08917.htm>(한겨레 뉴스 2013년 4월 3일 검색.)

2) 본고에서는 제2외국어는 국내에서 교육 및 학습되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의미하며, 외국어 (foreign language)는 학습자가 자국 내에서 학습하는 모어 (first language) 이외의 언어를, 제2언어(second language)는 학습자가 목표언어 사회에서 학습 및 습득하는 모어 이외의 언어를 의미한다.

갖고 있던 동기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유학이나 여행, 혹은 워킹 홀리데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일본어 모어화자나 사회에 접촉하면서 어떤 심적 변화를 경험하는지와 같은 질적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개별성 요인 연구」가 주로 학습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이 놓여 있으며,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목표언어를 마스터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제2언어습득 및 교육 방법 연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누구든지’, ‘실패 없이’, ‘많이’ 일본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능률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인은 쉽게 흥분해서 수업 중에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는 편이 좋다.」는 일본인 교사와 「역사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하는 일본 정치가들에 대해서 일본인이 데모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자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과연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었다. 또한 필자는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과 교육은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이해」가 불가능한 채로는 언어능력이 향상된다 하여도,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믿는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제2언어 습득 분야의 개별성³⁾ 연구는 연령, 적성, 동기, 태도, 학습 전

3) 제2언어습득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라는 용어는 학습자의 숙달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개별성」을 사용하기로 함.

략, 스타일, 성격, 정서,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성취도와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개별성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Larsen-Freeman and Long(1991)과 Brown(2000)이 각각의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성 요인을 정리한 것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요인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眞嶋, 2005). 다시 말하면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은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성격요인」, 「정의적 요인」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각각의 연구를 비교 검토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표 1> Larsen-Freeman and Long와 Brown 개별성 요인 비교

	Larsen-Freeman and Long		Brown
사회심리적 요인	동기(도구적 / 통합적) 태도(부모 · 친구 · 학습환경 · 교사 · 민족적귀속의식)	사회문화적 요인	태도, 제2문화 습득, 사회적 거리, 이문화 교육능력, 언어정책, 가치관, 교실 문화
성격요인	자존감, 외향성, 불안도, 리스크 테이킹, 부정에 관한 민감도, 감정이입, 억압, 애매모호함에 대한 관용성	정의적 영역 : 자존감, 억압, 리스크 테이킹, 불안 감정이입, 외향성	동기: 도구적 / 통합적, 내발적 / 외발적
기타요인	기억 · 의식 · 의지, 언어장애, 관심, 성별, 출생 순, 과거의 기억		

Larsen-Freeman and Long(1991, pp161~229 및 Brown(2000, pp54~218)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어교육학계의 개별성 연구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초기에는 일본 내의 유학생과 비즈니스맨, 귀국자녀, 중국 귀국자, 인도네

시아 난민 등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출신지나 모어, 또는 학습 목표에 의해 그룹화 되어 그 차이점을 다루었다. 90년대에는 학습 전략과 신념, 자율학습과 리소스, 제2언어학습과 습득의 개별성에 관해서, 그리고 2000년대 전반에는 일본어 학습 환경의 에스노그래피 및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양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율적인 언어학습 능력 향상에 주목하였다(林2006, p5).

국내의 연구로는 천호재의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목표언어화자가 아닌 학습자 관점으로부터의 교재 작성 및 문법 교육의 중요성(천호재, 2008),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천호재, 2009) 그리고 대학생 일본어 학습자의 인지 전략에 관련된 연구(천호재, 2010)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천호재의 일련의 연구는 개별성을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가 아닌, 한국인 학습자, 혹은 일본어 전공자, 남학생, 여학생과 같은 그룹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재일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岩男·萩原의 일련의 연구, 모이야(モイヤ-1987), 田中(1991), 田中他(1993), 井上(1996), 栖(1996), 金田(1998), 細越(199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교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자를 배려해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지», 「학습자들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 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등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열거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질문지를 통한 양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목표언어와 사회 구성원에 관한 태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 변화와 행동, 그리고 인지 양상에 관하여 단순한 의식조사 수준이 아닌,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고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M-GTA(Modified-Grounded Theory Approach)

제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grounded on data)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가 최초 출판한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1967)이외에 3개의 버전이 더 있다. 따라서 근거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이 4개의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기존 근거이론의 결점이 수정 보완된, M-GTA(Modified-Grounded Theory Approach) 木下(1999)를 선택하였다(이하 M-GTA로 표기). M-GTA는 먼저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테마를 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뒤 「개념」⁴⁾을 생성한다. 최초로 생성된 개념은 제2 제3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사점(베리에이션)과 반대 예를 분석 워크시트에 열거하고, 이론적 샘플링을 한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보며 더 큰 상위 개념들의 집합체인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나 움직임에 관해서 연구자의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 가는 방법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본 연구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통계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구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자의 이론적 감수성(theoretical sensitivity)에 의거하여 그 특정 대상의 행동 특성(분석 테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된 분야(‘grounded’)에 관한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이론 및 구축된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4) 질적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코딩작업은, 데이터로부터 1차, 2차, 3차 코딩이 이루어지는 직선적인 과정이지만, M-GTA에서는 데이터에서 분석된 모든 결과를 「개념」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분석의 최소 단위로 한다.

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3.2 분석 초점자 및 데이터 수집

본고에서는 木下(1999, 2003)에 준하여 「분석 대상」이라는 용어 대신 「분석 초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분석 초점자는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상 면접 대상자를 의미한다. 본고의 분석 초점자는 총 9명이며, 그 중 5명은 일본 유학 중이었으며, 4명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 중이었다. 또한 서울의 S대학과 경기도의 K대학 그리고 일본의 O대학 재학 중이었으며, 단 한 명만 취업 중에 있었다. 일본어 전공자가 6명, 비전공자는 3명이었다. 인터뷰는 2007년 11월~2008년 1월, 2011년 12월~2012년 1월에 걸쳐서 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테스트⁵⁾를 거쳐 명확성을 검증하였으며, 반구조화(semi-structure) 및 자유회답식(open-ended question)⁶⁾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뷰는 본 연구에 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60분~8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한 뒤 문자화 작업을 거쳐 데이터화 되었다. 분석 초점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의 일어 능력은 元田(2005)의 「일본어능력 자기평가(4기능)척도」를 분석 초점자에게 스스로 체크하도록 한 결과와, 일본어 능력 시험 등의 자격증 취득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분석 초점자의 일본어 학습 경력은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10년까지, 유학 기간은 1개월에서 4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어 학습 경력과 유학 기간에 따른 태도 변화의 추이

5) 분석초점자와 같은 모집단(한국어 모어화자로 일본어 학습자)에 속해 있는 대상에게 pretest를 실시하였다.

6) 분석 초점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항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분석 초점자

	일어학습경력		일어능력				전공	현거주지
	JSL	JFL	書	讀	聞	話		
A 씨 29세(남)	6년		상급				일본학	일본
	4년	2년	상	상	상	상		
B 씨 25세(여)	4년		상급				일본어	일본
	3년9개월	3개월	상	상	상	상		
C 씨 30대(여)	10년		상급				일어일문 (현직교사)	일본
	3년	7년	상	상	상	상		
D 씨 26세(남)	3년		상급				일어일문	한국
	1년5개월	2년	상	상	상	상		
E 씨 23세(여)	6년		상급				일어일문	한국
	10개월	5년2개월	상	상	상	상		
F 씨 29세(여)	6년		중급				일어일문	일본
	1개월	6년	중	중	초	중		
G 씨 25세(남)	2년		중상급				경제학 (부전공일본어)	한국
	1개월	1년11개월	중	상	중	중		
H 씨 26세(남)	1년6개월		중상급				컴퓨터공학 (부전공일본어)	한국
	1개월	1년5개월	중	중	상	중		
I 씨 23세(여)	3년		중급				관광경영	한국
	11개월	2년1개월	중	중	초	중		

3.3. 분석 테마로서의 「태도변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도변화」란, 심리학에서 말하는 「태도변용」을 의미한다. 「태도가 변용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타자의 발언이나 문장 등과 같은 언어에 의한 변용과정, 보수·벌·권위 등과 같은 사회적 세력에 의한 변용과정, 그리고 환경 변화와 같은 체험에 의한 변용과정이다. 또한 태도대상(본고에서는 일본인 및 일본사회)에 대한 좋은 감정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극 속에서 태도변용은 일어난다.」(有斐閣 心理學辭典, 2005)고 하는 것이 태도변화에 대한 심

리학적 정의이다.

또한 朴世稀(2006)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개별성 요인에 관하여 논하면서 「동기」 및 「신념」 요인은 학습 발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며, 「국가대표로서의 의식」, 「경쟁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은 유학 생활 및, 교사/교우 관계와 같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pp96~100).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고는 「학습 환경(유학)은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유학 전후의 체험에 따른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의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분석 과정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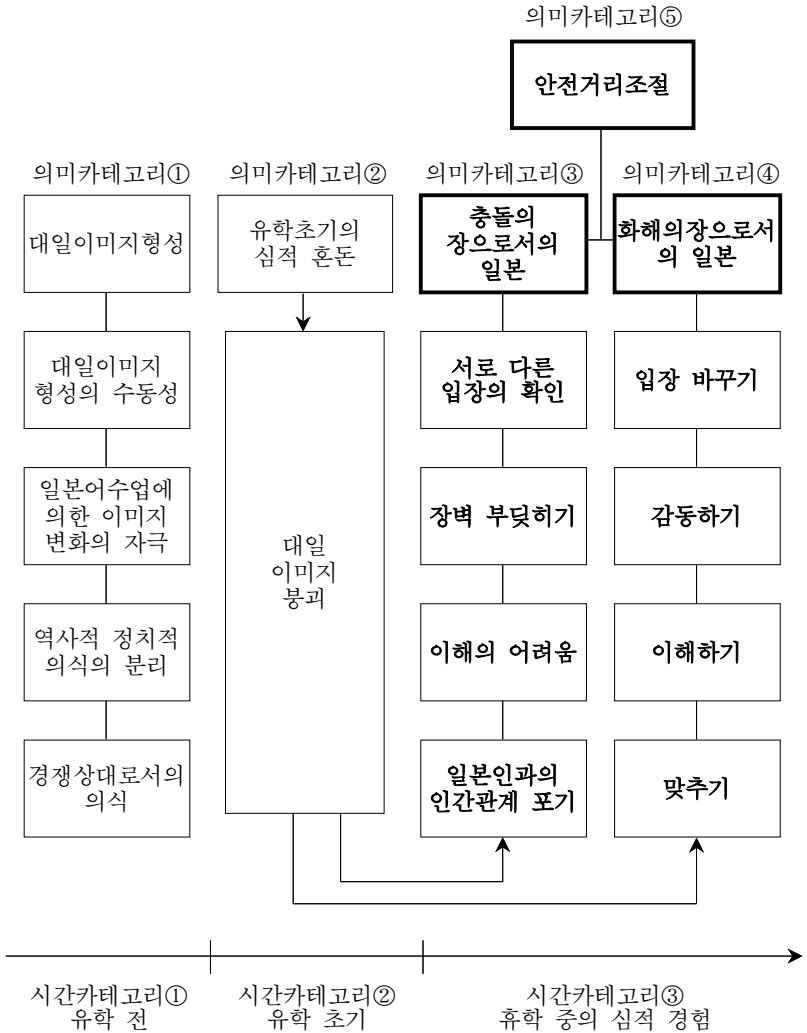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생성된 개념은 모두 13개이다. 필자는 이 개념들을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하여 유학 전, 유학 초기, 그리고 유학 중의 심리 경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의미를 설명하는 의미 카테고리 5개로 묶을 수 있었다. (이하 개념은 < >로, 카테고리는 【 】로 표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개념과 카테고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 전의 심적 경험으로 【對日이미지 형성】 - <對日이미지의 수동성>, <일본어 학습에 의한 對日이미지 전환>, <역사 및 정치적 의식의 분리>, <경쟁 상대로서의 의식>이 있으며, 【유학초기의 심적 혼돈】 - <對日이미지의 붕괴>, 그리고 유학 중에 경험하는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과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그리고 이 두 카테고리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는 핵심 카테고리, 분석 초점자들의 심적 다이내믹스를 나타내는 【안전거리의 조절】 을 생성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대한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과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

본】, 그리고 핵심 카테고리인 【안전거리의 조절】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자 하며, 그 이외의 분석 결과에 관해서는 내용의 반대함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면을 달리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필자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 유학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전체상에 착목한 결과, 유학 경험이 없는 학습자⁷⁾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확실적인 대일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유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JSL 환경에 있는 학습자의 경우 급격한 심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유학 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 와서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졌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화충격을 받은 경우와 「일본인은 모두 개인주의적이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유학 이전의 일본어 학습 기간이 길고, 사전지식이 많았던 학습자의 경우, 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7) 본 연구에서는 유학으로 인한 태도변화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고찰하기 위하여, 분석 초점자와 같은 모집단의 유학 경험이 없는 학습자 7명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행하여 비교 분석 하였으나, 본고는 유학 중의 심적 경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학 전의 개념과 카테고리에 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개념도

먼저 부정적인 변화는, 역사 및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일본인과 마찰

을 경험했다는 등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①<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편견 등의 체험 등을 근거로 하여 ②<장벽 부딪히기>라는 개념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마찰 등에 관한 증언으로부터 ③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일본인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게 되었다.’ 와 같이 일본인과 일본 사회로의 동화 의지나 커뮤니케이션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증언들로부터 ④<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포기> 개념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들 ①~④의 개념은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자 했을 때 그들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다.

반대로, 모어화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경험 ⑤<입장 바꿔 생각하기>, 따뜻한 일본인의 진심에 감동받는 경험 ⑥<감동하기>, 지금까지의 선입견과는 달리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⑦<이해하기>, 그리고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일본 사회의 룰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경험 ⑧<맞추기>와 같은 개념을 생성할 수 있었다. 필자는 ⑤~⑧의 개념들을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기로 하였다.

이처럼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카테고리과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카테고리를 만듦으로 인하여 유학 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느끼는 복잡한 심경을 두 개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4.1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 <장벽 부딪히기>, <이해하기의 어려움>,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포기>의 개념이 모여 생성된 것이다. 다음의 예증을 보자.

예1) 교실 칠판에 일본 지도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일본해’, ‘다케시마’라고 적혀 있어서, 내가 ‘동해’, ‘독도’라고 고쳤다. 그런데 다음 날 지도를 보니, 다시 ‘일본해’, ‘다케시마’로 고쳐져 있었다. 나중에 (일본어학교의)담임 선생님이 한 것을 알았다. (중략) 한국 학생들끼리 우리 선생님 웃기지 않냐, 고 했다. 솔직히 선생님은 자기 나라니까, 맘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트러블도 없었다. 내 일본어 공부에 전혀 나쁜 영향 같은 건 없었다. <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 D(전공)>

분석 초점자 D는 지도의 표기를 바꿨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반응에 관하여 자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일본어 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일본어 학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했지만,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혹은 ‘인간적인 관계는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굳이 목표언어사회에까지 가서 배우고자 했던 학습자가 가장 가까운 모어화자인 담임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D는 일본인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담임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피8)」 행동은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억

8) Fukushima & Ohbuchi(1996)은 대인갈등에 직면 시, 그 해결법으로 사용하는 스트라테지를 통합(설명, 설득, 질문, 교환거래, 타협, 다른 제안), 회유(간접적 주장, 유화, 애원), 분배(명확한 주장, 의문), 공격(비판, 위협, 분노), 동조, 회피, 제3자의 개입(원조, 중재)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제된다(新倉2001).」는 점을 고려한다면, D는 담임교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써 트러블은 없었지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소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2)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갑자기 건물이 철거된다고 해서 집을 구하려 다녔다. 외국인도 괜찮다는 집이었는데, 막상 가니까 국적을 물어봤다.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전에 살던 한국인이 영망이었다고 했다. 그런 말 들으면 일본인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한국인이라면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벽에 부딪히다:D(전공)>

예3)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그래서 유학생 환영 파티에 갔다.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본인들은) 서양 학생들에게는 훨씬 친절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고 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다. <벽에 부딪히다:E(전공)>

예2)에서 D는 ‘일본인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인이라며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며 일본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스트레스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임상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불쾌한 체험이나 감정을 약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 ‘합리화’에 속한다. 즉, 일본인 탓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이야(モイヤ)는 일본인 유학생들의 심적 스트레스와 그 처리에 관하여 논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의 거절」을 경험한 유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수용해 준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학습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1987, p92). E의 경우 역시, 위의 예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과 이야기 하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경우임을 감안해 보면,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실패에 관한 실망감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예4) (아르바이트) 점장이, 너 자신보다 손님의 편리를 생각하라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본인은 부드럽게 말해도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무서웠다. (중략)일본인 동료는 점장이 뭐라고 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はい、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예, 예 알겠습니다).”를 연발했었는데, 나는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아~아~”라고만 했다. 나는 다 이해했다는 뜻이었는데, 점장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나중에 선배가 불러서 가 봤더니, 점장이 정말로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을. 그 다음부터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역시 한국인들과는 좀 다른 걸 알았다. <이해의 어려움:E(전공)>

예5) (병원에서)간호사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はい、はい(네, 네)’그랬다. 순간 일본인은 친절하지만 무섭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겉과 속으로 무얼 말하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해의 어려움 :H(부전공)>

E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곳에서 그리고 H는 병원 간호사와의 접촉에서 일본인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관하여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점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차갑다’,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E 본인의 판단에 「혼나야 당연한」상황에서 오히려 「부드럽게」주의를 받은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자신이 ‘아~아~’라고 대답했던 것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감탄사 ‘아~’가 ‘이해’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어에 의한 負의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머리를 반복해서 조아리거나, 미소와 같은 일본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룰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기는 마찰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예6) 일본에 와서 인간관계가 좀 귀찮아 졌다. 일본사람들은 말 할 때 오모테와 우라(겉과 속)가 있다고 하고, 가끔 한국인들과는 다른 점을 느꼈다. 거리감을 느꼈다. <일본인과의 관계형성 포기:B (전공)>

B는 일본 체류 기간이 3년 9개월로 비교적 긴 편에 속한다. B와 같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긴 분석 초점자들로부터 처음에는 ‘일본인과 이야기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와 같이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점차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이 높다고 의식할수록 커뮤니케이션 의욕(Willingness to communication)이 높아진다(MacIntyre et al.(2001)는 주장도 있지만, B와 같이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의욕이 감소했다고 하는 본고의 분석 초점자들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언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의욕이 正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환경과 심리상태에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화해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면, 한국인은 ‘정’, ‘친밀감’, ‘마음이 편함’, ‘상대가 나를 받아들임’, ‘가까움’ 등

과 같은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관계성 우리』가 강한테 반하여 일본인은 ‘유대성’, ‘동질성’, ‘공통성’, ‘소속감’ 등과 같은 속성으로 표현되는 『집단 귀속 및 집단동일시 우리』가 강하다고 하고 있다(최상진, 2003, p153~159).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다면, 한국인 학습자가 처음 만난 일본인과 친구가 되고자 무작정 노력했을 때 느끼는 거리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위의 예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은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 ‘오모테와 우라’, ‘다테마에와 혼네’에 대한 언급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⁹⁾인데 이해하기 힘든 일본인의 행동을 경험할 때, 사전지식으로써 갖고 있던 ‘오모테와 우라(겉과 속)’ 혹은 ‘다테마에와 혼네(명분과 본심)’라는 규칙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테마에와 혼네』는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하는 土居 (1985)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본고의 분석 초점자들의 이해에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카테고리에 속하는 개념으로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 <감동하기>, <이해하기>, <맞추기>이다. 다음 예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예1) (일본인 친구와 역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친구는

9) 이는 星野(2000)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중국, 대만, 한국의 많은 학습자들은 일본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사귀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 ‘다테마에와 혼네(명분과 본심)’에 관한 룰을 든 경우가 특히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나도 지금까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양보해서 제3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일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에 와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E(전공)>

E는 일본인 친구와의 역사 문제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양보해서 제3자의 입장이 되다’, 혹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일본 유학으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값진 공부라고 했듯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양국의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는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장래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2) 아르바이트 점장과 사이가 좋았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전화했더니, 자기 자식인 것처럼 좋아해 주면서, 입학금이 없으면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60만 엔을 빌려 주었다. 일본인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 <감동하기:A(전공)>

A는 점수에 맞춰서 일본학을 선택했던 것뿐이고 일본에 별다른 흥미나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편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와서 일본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인은 차갑다.’, ‘일본인은 10엔까지 나눠서 낸다.’와 같은 처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졌으며,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경우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예3) 일본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은 일본에 와서 많이 없어졌다.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이것저것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독도 문제에 관하여)일본이 무작정 우긴다 생각했었고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하기 :G(부전공)>

예4) 일본인 친구랑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친구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다. (중략)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문 한자도 열심히 읽게 됐다. 북한에 관해서 물어보면 한국의 대표로서 대답할 수 있게 공부하고 있다. <이해하기 :E(전공)>

G는 일본에 와서 對日이미지가 호전되는 변화를 경험했으며, 예4)의 E는 모어화자와의 역사문제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해 왔던 한자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예증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학습동기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로부터는 JSL 환경에서 친구가 아닌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양국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언은 들을 수 없었다.

예5) 전에는 표정이 딱딱하고 무섭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일본어로 말할 땐 이상하게 내가 웃는다. 마스크에서나 주위 일본인의 웃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중략).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언제나 웃어야 한다는 게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이해하기 :H(부전공)>

예6) 일본인과 말할 때 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는 이런 내가 싫었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일본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가 맞추는 편이 이아가 잘 풀린다는 걸 알았다. 생존적응,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게 됐다. <이해하기: E(전공)>

H는 4.1의 예5)에서 일본인 간호사의 웃는 얼굴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지만, 위의 예5)에서는 자신도 일본어로 말할 때는 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인의 이미지가 항상 웃는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역시 일본인의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으로써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6)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어 사용과 이문화에 접촉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행동함으로 인하여 ‘자신다움’을 박탈당한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에 부합함에 따라 또 다른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Berry(1992)의 분류¹⁰⁾에 따르면 E는 문화적응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합’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생존적응을 위해서’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가 말하는 ‘생존적응’ ‘살아남기 위함’ 이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켜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어를 장래의 직업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10) Berry(1992)는 문화적응 태도로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지, 상대 문화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자문화와 상대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자 하는 ‘통합’, 상대의 문화나 관계를 중시하는 ‘동화’, 자문화만 중시하는 ‘분리’, 어느 쪽 문화도 중시하지 않는 ‘주변화’와 같이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4.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안전거리 조절 행동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과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에 관해 언급해 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다이나믹스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에서는 예1) ‘선생님과 일본어 공부만 하겠다.’, 예3) ‘유학생 파티에서 일본인을 사귀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다.’ 등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하거나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과 일본 사회에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에서는 예1)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일본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3) ‘막연한 혐오감이 없어졌다.’ 예6) ‘일본인과 말할 때 내가 달라진다. 그게 편하다.’와 같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리를 좁혀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이와 같은 ‘거리 조절 행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에 관한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적절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마찰이나 알력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습을 지속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해 놓았던 ‘그 선생님과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경험, 예4)와 같이 모어화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은 후 ‘일본인들의 말하는 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다’고 하는 경험, 그리고 예4)와 같이 일본인 친구와 정치적인 문제로 의견 차이를 확인 한 후에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는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과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을 겪으면서 받는 불쾌하거나 유쾌한 경험 모두가 일본어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를 살려서 일하고 싶다’¹¹⁾는 희망은 전공자에게서나 비전공자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던 장래의 목표였는데, 이렇듯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꿈을 안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일본 사회 간의 안전거리 조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5. 고찰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그동안 양적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적응 과정에 관하여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방일 후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유학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집을 구할 때 한국인이라 거절당했다,’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는 등의 본고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의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제도 역시, 방일 유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유학 포기는 ‘적응 프로세스’가 아닌 ‘부적응 프로세스’라는 별도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고의 논점과는 일치하지 않아 지면을 달리하여 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 본연구의 분석 초점자들 중에서 일본 유학을 경험하지 않은 JFL학생들은, 일본어 학습을 ‘일본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하여’ 같은 오락적인 의미로, ‘영어에 비해서 배우기 쉽기 때문에’와 같은 차선책으로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일본 유학 경험을 한 분석 초점자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일본어를 취업과 연관시켜 생계 수단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일 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현안들로 인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 공생, 공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돌과 화해 그리고 안전거리 조절 행동이란 연구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한국인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그리고 유학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김혜경, 칸지라차푸나랑시(2013). 미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시아계 대학생들의 이중 언어, 문화 체험과 정체성 <이중언어학>, 52권 이중언어학회 71쪽~99쪽
- 이문우(2010). 미국 내 조기유학 경험을 가진 한국인 대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자의식 <이중언어학>, 43권 이중언어학회 301쪽~324쪽
- 조현용(2007). 한국인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33권, 269~295쪽
- 최상진(2003).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사
- 천호재(2008). 일본어 학습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의 시점, <일어일문학연구> 일어일문학회, 제 65 집 235쪽~252쪽
- _____(2009). 일본어 학습에 대한 의식-학습자, 교사, 교재 집필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_____(2010). 일본어 학습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 일본어 학습자의 인지조절 적용양상, <일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제 36집 511쪽~528쪽
- 井上孝代(1996). 「外国人留學生のアカルチュレーション態度と留學生生活の満足度」『東京外国語大学留學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22号 pp.209-221 國際交流基金
- 岩男寿美子, 萩原滋(1998). 「在日留學生の対日イメージ(14)-帰国留學生の調査(1995)の枠組みと結果の概要」『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48号 pp. 75-103
- 纓坂英子編(2007).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三元社

- 金田智子(1998). 「異文化と接触するとき－留学生はどう対応しているのか」『広島大学留学生教育』3号 pp.1－15
- 木下康仁(1999). 『グラウンデ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質的実証研究の再生』弘文堂
- _____ (2003). 『グラウンデ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の実践』弘文堂
- 橋原暁 (1996). 『アジア人留学生の壁』日本放送出版協会
- 田中共子(1991). 「在日留学生の文化的適応とソーシャル・スキル」『異文化間教育』5号 pp.98－110
- 田中共子、高井次郎、神山貴弥、藤原武弘(1993) 「在日留学生を対象としたソーシャル・スキル」『情報行動科学研究広島大学総合科学部紀要』17号 pp.87－99
- 土居健郎 (1985). 『裏と表』弘文堂
- 新倉涼子(2001). 「在日留学生の対日葛藤と解決ストラテジー－異文化間対人葛藤研究への一試論」『千葉大学留学センター紀要』7号 pp.1－11
- 朴世稀(2006). 「ある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個別性要因について」『日本語日本文化研究』16号 pp.93－102 大阪外国語大学日本語講座
- 林さと子(2006). 『第二言語習得の個別性要因に関わる基礎的研究－社会文化的要因を中心として－』平成14～16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星野りえ(2000). 「アジアからの留学生の日本人学生との交友関係に関する研究」『お茶の水大学人間発達研究』23号 pp.121－135
- 細越久美子(1999). 「異文化間接触と「緩衝機能」：在日留学生の事例を通して」『岩手県立大学社会福祉学部紀要』1号 pp.73－86
- 真嶋潤子(2005). 「学習者の個人差と第二言語習得－「学習スタイル」を中心に－」『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8号 第二言語習得研究会 pp.115－134
- モイヤー康子(1987). 「心理ストレスの要因と対処の仕方－在日留学生の場合」『異文化間教育』1号 pp.81－97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cultural contact. In J. W. Berry, Y. H. Poortinga, M. M. H. Segall & P. R. Dasen (Eds.)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271-291).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Ed). NewYork:AddisonWesleyLongman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AldinePublishingCompany
- Larsen-Freeman, D. & L. Long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Research. New York: Longman

MacIntyre, P. D. & Baker, S. C., Clément, R., Conrod, S. (2001). Willingness to Communicate, Social Support and Language-Learning Orientations of Immersion Studen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pp. 369-388

박세희(Sehi Park)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446-7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51-1

전화번호: (010)-6227-2204

전자우편: twoyears@hanmail.net

접수일자: 2013년 8월 13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10월 11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